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7호

<칼럼 기고>

성 평등한 스포츠 세상, 그날이 곧 오기를

글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홍덕기

당신이 어떤 성취를 했든 학폭은 용서받지 못한다

글 / 서울신문 곽혜진 기자

학교 폭력, 교육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인숙 변호사

스포츠폭력,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체육계 잇단 학폭···에이스선수 과도한 권한, 폭력 조장”

“학교 운동부 폭력, 징계는 높아졌지만···대책 시급”

“코로나로 훈련 줄었지만 체육계 폭력은 진행형”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인권 관련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성 평등한 스포츠 세상, 그날이 곧 오기를

스포츠 성 인지 감수성의 역할과 과제

당신은 맨스플레인(mansplain)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남자(man)와 설명(explain)의 합성어로 젠더적 편견을 가진 남성이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분야에 대해 여성이 남성만큼 잘 모를 것이라는
우월성을 전제로 여성에게 과도하게 설명해주는 상황을 꼬집는 용어다.
'여자가 설마 스포츠를 알겠어?'라는 편견은 스포츠가 맨스플레인의 대표적 분야임을 보여준다.

글 홍덕기



스포츠 성 인지 감수성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성 고정관념을 되짚어보고, 이를 넘어서는
시도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스포츠, 남성 헤게모니 재생산의 장

스포츠의 핵심 요소인 스피드, 힘, 강인함, 공격성, 정신력 등은 전통적으로 '남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여겨져왔다. 남성의 영역인 스포츠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오랜 기간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1922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운동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최장 거리 육상 종목은 200m에 그쳤다.
마라톤은 1984년 LA 올림픽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참여를 허락했다. 여성은 장거리를 뛸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한 결과다.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권위주의 문화', '군사문화', '가부장적 문화'는 남성중심적 스포츠 문화와
맞물려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고 여성을 사회적으로 억압한다. 미디어는 여성 운동선수를
경기력보다는 성적 욕망과 연결해 상품화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몸매, 외모, 의상
등 전시적 관점에 초점을 둘 때 여성의 신체나 운동은 수단화된다. 결국 스포츠에서 여성 스포츠 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일은 남성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지배-피지배의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다음 장 계속

스포츠 미투 운동과 그 한계

한 국가대표 여성 선수의 스포츠 미투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스포츠 미투 운동은 일부 용기 있는 여성 선수들이 동참하면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성중심적 스포츠 현장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 남성 가해자 몇몇의 개인적 도덕성을 비난하고 단죄하는 것이 남성중심적 스포츠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성폭력의 경우 스포츠 분야가 갖는 폐쇄성과 위계질서 등으로 인해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쉬운 특성을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에 쉽게 노출되며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이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스포츠 미투 운동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한계에 부딪힌 이유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성적·사회적 억압의

이중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출발은 스포츠 성 인지 감수성 향상으로부터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그저 얻어지지 않았으며, 남성과 대등해지려는 여성의 투쟁적 결과의 산물이다. 그동안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성적 억압과 사회적 억압의 이중 억압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여성이 이중 억압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체적으로 나약하고 무능력하다는 가부장적 편견 및 사회제도에 대한 도전의 한 형식으로서 남성의 전유물이던 스포츠에 참여해왔다. 즉,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젠더, 신체성, 성차에 관한 신념을 표현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단순히 경기 및 훈련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스포츠는 남성만의 전유물로 남아서는 안 되며, 그 출발은 스포츠 성 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포츠 성 인지 감수성의 향상은 스포츠와 여성 인권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다행히 최근 미디어와 출판계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운동똥'이나 '노는 언니' 등 여성과 스포츠를 소재로 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야구소녀> 같은 영화는 남성중심적 스포츠 문화에서 소외되어온 여성에 주목하며 대중의 공감과 관심을 얻고 있다. 한편 <어커피트 좀 날려도 되겠습니까>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등의 책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던 스포츠 종목에 여성이 참여하면서 겪는 일들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다.

스포츠 성인지 감수성은 스포츠와 관련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성 고정관념을 되짚어보고, 이를 넘어서는 시도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스포츠가 고통과 억압을 받으며 소외된 여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할 때 스포츠 본연의 의미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성 평등한 스포츠 세상, 그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을 쓴 **홍덕기**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교육·인권에 대해 관심 있다.

[핵심은] “당신이 어떤 성취를 했든 학폭은 용서받지 못한다”

서울신문 2021.03.13
곽혜진 기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 선수를 계기로 시작된 학교폭력 폭로전이 스포츠계를 비롯해 연예계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연루된 수많은 스타가 하루아침에 활동을 중단했죠. 각자 대응 방식은 엇갈립니다. 침묵하거나 물러서거나 맞서 싸우거나.

이번 주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학폭 폭로전’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함의를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① 엘리트 육성에 매몰돼 괴물들 키워

흥국생명을 신호탄으로 송명근, 심경섭 선수 등 여타 배구 선수들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졌고, 이상열 KB손해보험 감독이 국가대표팀 코치 시절 박철우 선수를 폭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체육계에서 이러한 폭로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쏟아집니다. 2019년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선수가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1년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14.7%가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79.6%는 ‘신고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유독 체육계에서 폭력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 특유의 엘리트 체육 문화를 지적합니다.

성과를 최우선시하는 집단 속에서 어린 선수들은 동료들과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메달에 대한 압박감이 따돌림과 폭력으로 잘못 분출돼도 묵인되죠. 학교폭력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 핵심 ② 학폭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

학교폭력은 체육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은 대중에 노출됐기에 더욱 도드라지는 것뿐입니다. 입시 경쟁에 내몰려 폭력을 폭력이라 인식하지도 못한 채 교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은 지금도 교육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폭로를 보면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난 일들입니다.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을 성인이 되고 나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마땅한 증거도 없습니다. 때문에 진위를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허위 폭로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가해자로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슈가 되면 수많은 기사가 생산되고,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마녀사냥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폭로전을 마냥 옹호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기능은 명확합니다. 일련의 사태는 가해자가 그간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 누군가의 인생을 폭력으로 얼룩지게 했다면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을 더는 학창 시절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셈입니다.

[기고] 학교 폭력, 교육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성장기 학생들 사이 발생한 사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가해자가 처벌되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커, 신고보다 혼자 감내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등의 '2차 가해'도 드물지 않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과거는 현재보다 현저히 인권감수성이 낮았는데, '장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말과 함께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를 별난 사람으로 취급하고는 했다. 오히려 학생들과 학교가 피해자에게 편견을 갖고 가해자 편에 서기도 했다.

학생 스포츠 선수들은 '성적지상주의' 아래 지도자나 선배에 의한 언어·신체 폭력을 용인하고 감수해왔다. 또한 지도자들이 관리 목적으로 학년을 섞어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관습으로 인하여 선배를 정점으로 한 또래 간 '위계 문화'가 강화됐다.

미성년자 집단 사이에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완장'을 채워 서열과 복종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성적지상주의나 완장문화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성인이나 집단에도 원인이 있는 고질적인 병폐임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1월 제정 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원래 학교폭력 심의 여부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다가 '학교가 폭력을 감싸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1년 5월 학교폭력 신고 접수시 의무 심의하도록 개정했다.

시간이 지나자 이 같은 엄벌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었다. '교육 기관인 학교는 경찰서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2019년 8월 학교장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됐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일반 형사사건에서처럼 가해자 엄벌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결과다.

그러나 올해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관용 엄벌만을 말하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고 성적지상주의 등으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정부나 단체 등의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과거 폭력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까지 전수조사해 '영구 퇴출'까지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선수등록,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국가대표 선발에도 제한을 두겠다고 한다.

해를 입힌 학생도 아동임을 잊은 성급한 방안이다. 일단 성인 대상 처벌 기준보다 훨씬 가혹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성폭력을 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지만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경우 다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비스포츠계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처벌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가해 학생이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의 조건을 이행하면 한 번에 한해 학교 폭력 기록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기록이 남는 경우에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지우게 돼 있다.

또 소년법은 소년보호 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교육적 조치를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아동이며, 이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과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함에 동의한다. 그러나 단지 처벌만으로는 온전한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학교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으로도 피해자는 절차로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정부는 가해 학생도 아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알려주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른다면 피해는 서서히 회복될 수 있다. 아무리 큰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소중한 우리의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체육계 잇단 학폭... “에이스 선수 과도한 권한, 폭력 조장”

“체육계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한 학생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 운동부 시스템의 문제다. 적어도 우리 지역 학생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인권교육을 제공해 선수들이 폭력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향후 스포츠 폭력 문제로 낙마하는 선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최근 학교폭력 논란이 체육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남에서도 촉망받던 한 고교야구팀 선수가 NC다이노스에 1차 지명됐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지명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 교육부가 2020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경남의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56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선수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공익활동 차원으로 도내 학교 현장을 찾아 나선 변호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강정한 변호사(사진)이다. 그는 지역 학교들을 방문하며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폭력 특별 교육을 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스포츠폭력'을 지도자와 선수, 관계자 등 스포츠 참여자가 경기나 훈련과정 중, 혹은 다른 스포츠 참여자를 상대로 고의 또는 과실로써 물리적, 정신적 폭행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그는 학생 선수들에게 스포츠폭력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고, 최근 불거진 체육 현장 스포츠폭력 사태와 관련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하는 '스포츠 폭력 및 대처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마산 용마고, 마산중학교, 창원 신월중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지난 8일에는 마산고등학교, 물금고등학교를 찾아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면하는 민·형사상 책임, 징계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중학생 선수들에게엔 사이버폭력과 스포츠폭력 관련한 강의를, 고등학생 선수들에게엔 도핑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추가로 설명한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쉽고 재밌게 풀어낸 강의는 학생들이 집중하게 만들었다.

강 변호사는 전국에서 6명 뿐인 스포츠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김해 모 스포츠팀 코치 폭력 사건 등 도내 다양한 스포츠폭력을 담당했다. 지난해 NC다이노스 지명철회 당시에도 프로야구선수협회 공인에이전트로 활동했다.

과거 학교 스포츠폭력은 지도자들이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운동기량 향상, 팀 기강 등을 이유로 자행했고, 이 문화가 습관화되어 운동부 훈련문화로 정착했다. 이러한 훈련문화는 고스란히 학생 선수들에게 전달돼 선·후배 사이에서도 폭력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건은 야구, 배구 등 팀스포츠에서 발생한다"며 "에이스·주전 선수들에게 많은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면 그 선수는 팀 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남용하게 되며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도내 많은 학교 운동부에서 강의 신청을 하고 있다. 교육을 진행했던 학생들이 상담을 위해 직접 연락하기도 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을 인정하거나 납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 언젠가는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바램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도 최근 학교장의 대회 참가 제한 결정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폭력 연루 학생선수에게 최대 대회참가와 훈련제한 6개월,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 학교 자율 결정으로 '주중 훈련 없는 날'을 지정하고 기존 학생 선수 상담기록을 '월 1회 확인'에서 '수시 확인'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운동부 폭력, 징계는 높아졌지만... 대책 '시급'

프로 선수들의 '학교 폭력 사건' 폭로가 잇따르면서 학교 운동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아졌지만, 신고와 처리, 피해자 보호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 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자 프로배구 간판스타였던 이재영 이다영 선수, 중학교 때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로 무기한 출전 정지와 국가대표 박탈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도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한 김유성 선수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돼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징계수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선수는 대회 참가 제한부터 최대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까지 단계별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선수들도 긴장합니다.

[권윤오/마산고 야구부 :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못하면 자기 선수생활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체육계는 기숙생활을 하거나 운동부 안에서만 평가를 받다보니 신고와 징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지난해 경남교육청의 전수 조사에서도 학교 운동부 선수 3천600여 명 가운데 피해 학생은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윤성/마산고 야구부 감독 : "무조건 감춘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좋은 게 아니다, 빨리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 부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독립된 스포츠 인권기구를 뒤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강정한/경남체육회 자문변호사 : "피해자들이 쉽게 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독자적으로 수사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끊이지 않는 운동부 폭력을 막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구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단독] 코로나로 훈련 줄었지만 체육계 폭력은 '진행형'

노컷뉴스

지도자 폭력과 '학투' 등 각종 폭력 사건으로 인해 체육계가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현역 선수들 7명 중 1명이 현재 소속된 팀에서도 직접적인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 운동의 활성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피해 사례는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훈련이나 시합 과정에서의 폭력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는 선수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장애인선수 스포츠인권실태조사'와 '경기도 비장애인선수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각각 경기도에 제출했다.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실업·대학 선수들 중 12.9%가 현 소속팀에서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장애인 선수보다 폭력 사례가 많았던 비장애인 선수로 좁히면 피해자 비율은 16.5%로 높아진다.

이 중 모욕적인 말과 사생활 통제가 9.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외에도 무리한 훈련, 이유 없는 단체 기합, 신입 군기 잡기, 손·발로 때리기, 주먹이나 도구로 때리기, 단체 SNS방에서의 욕설,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가해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것은 팀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와 선배였다. 가해자 중 지도자는 68.3%를, 선배는 38.9%를 차지했다.

신체폭력은 선배와 지도자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언어폭력과 사생활 통제, 무리한 훈련은 주로 지도자가, SNS를 통한 언어폭력이나 이유 없는 단체기합이나 집단 따돌림은 주로 선배 선수가 가해자였다.

동료 선수(6.9%)나 후배 선수(2.8%)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었으며, 트레이너나 팀 닥터 등도 8.3%를 차지했다.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은 주로 훈련 중에 발생했지만, 사생활 통제와 군기잡기 등의 행위는 휴식·개인시간에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선수들 상당수는 이런 행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해자의 마음대로 이뤄졌다고 느꼈다.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21.7%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폭력이 가해졌다고 답했다.

운동 경력이 15년 이상인 고참 선수일수록(15~20년 34.6%, 20년 이상 30.0%) 이유 없는 폭력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문제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이런 사건을 겪었음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분은 나빴지만 참고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49.2%였으며 '그냥 웃거나 농담·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응답도 16.7%였다. 피해자의 3분의 2가 폭력 피해를 그냥 넘긴 셈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소극적인 대처 또는 무시가 많았다"며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외부 기관에 알렸다는 응답이 적어 신고방법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신고대책 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자는 3.7%였다.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에 대한 성적 비유, 술 따르기 강요 등이 이뤄졌다.

다음 장 계속

성별로는 여성 피해율이 5.7%로 남성 2.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남녀 성비가 유사했지만, 남성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7.7%에 불과했다.

주목할 부분은 성폭력 피해자의 81.5%가 일반 폭력 또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폭력 피해율은 2019년 26.0%에서 2020년 12.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동일항목 비교로 인해 2020년의 경우 전체 피해율보다 비교 피해율이 낮아짐)

지속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더불어 지난해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으로 인한 체육계의 자정 노력과 관련 입법 활동,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축소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반적인 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가 존재하며,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스포츠 폭력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83.8%는 소속팀 지도자가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매우 그렇다 33.4%, 대체로 그렇다 50.3%)고 답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6.2%(전혀 그렇지 않다 4.5%, 별로 그렇지 않다 11.7%)에 달했다.

소속팀의 스포츠 폭력 심각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폭력이나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겪은 응답자의 경우 각각 3.40점과 5.15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응답자는 1.36점과 1.56점으로 크게 낮게 나타났다.

스포츠 폭력예방과 대응과 관련한 교육 또한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폭력을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되는지를 측정한 허용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 1.66점, 미이수자 1.74점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체육계 폭력 대응에 대해서도 피해 유무에 따라 평가가 엇갈렸다.

폭력이나 성폭력 직접 피해 선수는 각각 2.73점과 2.52점을 준 반면, 그렇지 않은 선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3.51점과 3.41점을 줬다.

응답자들은 소속팀 이미지 훼손이나 지도자와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는 문화 탓에 폭력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선수생활의 불이익이나 팀 분위기 악화 등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체육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때문에 해결방안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도 스포츠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답했다.(징계 기준 강화 63.9%, 가해자 체육관련 취업 금지 41.3%)

전용기 의원은 "다양한 개선 노력에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 지난해 체육계 폭력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운동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식의 강압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연이어 불거진 학폭 논란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과 제도 개선에 체육인과 관계기관이 모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findlove@cbs.co.kr

주간 스포츠 인권 관련 소식

IOC "우린 중국 인권문제 해결할 슈퍼 세계 정부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3033400009?input=1195m>

대구국제사격장 '스포츠 인권 선언식' 개최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50471>

미국서 中인권탄압 맞서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주장 확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9_0001364369&cID=10101&pID=10100

[여명소리] 새로이 탄생한 현대판 난장이라는 스포츠

<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32>

[구자영의 '스포츠 가치를 말하다'] 학교폭력 논란, 체육계 쇠신할 기회다

<http://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80>

[소해준의 스포츠 멘탈코칭] 폭력 가해자 멘탈에는 '당위적 사고'가 있다

<http://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427>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평창장애포럼 개막

<https://www.news1.kr/articles/?4235450>

학교폭력 '땀질처방'...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9614

'코로나19'가 쓸고간 장애인계 참혹 현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310133949580752>

[투데이춘추] 지방체육회 독립 갈 길 멀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430>

[단독]'프로야구 선수 학폭' 물고문하고 흥기 위협에도 장난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13299>

대한청년체육회, 체육계 폭력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http://www.sportsw.kr/news/newsview.php?ncode=1065595268510715>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